

사회

Social Affairs

7 광주일보

제17634호 2006년 12월 22일 금요일

정시 경쟁률 발표 연기 약속

연세대 등 일부 대학들 번복

올해도 눈치작전 불가피

일부 대학들이 정시 원서접수 마지막 시간대별 경쟁률을 발표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을 번복, 수험생들이 혼란에 빠질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올해에도 막바지 눈치작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수험생들의 과잉 눈치작전과 이에 따른 인터넷 서버 다운 등을 막기 위해 최근 13개 대학 입학관리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관리협의회를 열어 원서접수 마지막 시간대별 경쟁률을 발표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 참여한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외국어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등 13곳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연세대, 서강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은 마지막날 경쟁률을 발표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눈치보기'를 한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26일 오후 5시 원서접수를 마감하는 연세대는 마감일 경쟁률 상황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시간은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서강대의 경우 마감일인 26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두 차례 경쟁률을 공개하기로 했다.

한편 전남대는 마감 직전 눈치작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서접수 마감일인 26일 오전 10시 이후에는 모집단위별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음 방침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마약 판매·투약 5명 구속

전남경찰, 공급책 검거 수사 확대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1일 서울 등 수도권과 전남 지역에서 히로뽕을 판매한 황모(46)·김모(55)씨 등 2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틀부터 히로뽕을 구입해 투약한 박모(41)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 판매자인 황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시 노원구 모 전철역 출구에서 마약 중간 판매자인 김씨에게 히로뽕 20g을 500만원에 판매하는 등 2차례 걸쳐 히로뽕 30g을 판매한 혐의다.

김씨는 박씨로부터 사들인 히로뽕을 순천의 한 당구장에서 마약투약자 박씨 등에게 판매하고 박씨 등은 구입한 히로뽕을 수십 차례에 걸쳐 커피나 생수에 타서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6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20g 분량의 히로뽕을 이틀로부터 압수하고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한 공급책 검거에 나서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



헬기 진화

21일 오후 진도 맹골도 해상을 향해 중 갑작스런 폭발 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시에라리온 선적 1천306t급 화물선 'JIDA호' 긴급출동한 목포해경 경비정과 헬리콥터가 진화 작업을 펼치고 있다. (목포해경 제공)

진도해상 선박 불... 中 선원 4명 사망

시에라리온 선적 1,306t급 'JIDA호' 기관실 내부서 폭발... 2명 중상

진도 앞바다를 항해하던 외국 국적의 대형 화물선에서 화재가 발생해 선원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쳤다.

21일 오후 1시30분께 진도군 맹골도 북서쪽 9km 해상을 항해 중이던 시에라리온(아프리카) 선적 화물선 1천306t급 'JIDA호'(선장 왕신준·46)의 기관실 내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배에 타고 있는 중국인 선원 12명 가운데 황해사 유로(42)씨 등 4명이 연기에 질식사 숨졌다. 김복신(54)씨 등 2명은 온 몸에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

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목포 해경은 경비정 7척·구난헬기 2대·특공대를 사고 현장에 급파, 8명의 선원을 긴급 구조했으나 선박 내부 침실에 있던 4명은 화재때문에 구출하는데 실패했다.

해경은 또 산림청 헬기까지 요청, 진화작업을 벌였으나 강한 바람때문에 이날 오후 8시 현재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다.

해경은 구출한 선장 왕신준씨 등을 상대로 폭발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JIDA호'는 지난 20일 낮 12시30분께 울산항에 마그네슘 등을 하역하고 출항,

중국 단둥(丹東)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다.

/목포=이성희기자 lsh@kwangju.co.kr

◇사망자=▲유로(42·황해사) ▲류은경(39·선원) ▲동수규(53·) ▲임양(22·)

여수해상 선박 전복 선원 등 3명 숨져

21일 오전 8시45분께 여수시 돌산읍 울림리 두문포 앞 해상에서 46t급 차도선 '98보명호'에 실려 있던 방과제 공사용 크레인이 전복됐다.

이 사고로 배가 뒤집히면서 선장 여모(54·여수시 경호동)씨와 기관장 최모(58·여수시 봉산동), 크레인 기사 임모

(60·부산시 진구)씨 등 3명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경찰은 두문포 방과제 앞에서 크레인을 내리는 과정에서 배가 중심을 잃고 전복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kwangju.co.kr

광주 오치초등생 48명 복통·구토

학교급식 먹지 않은 상태 집단 발병...역학조사 나서

광주 오치초등학교 학생 48명이 20일 오전 원인 모를 복통과 구토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광주시교육청과 보건당국은 오치초교 학생들이 이날 학교급식을 먹지도 않은 상황에서 집단 발병한 점으로 미뤄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전염성 바이러스 감염 때문이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

다.

2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오치초등학교 학생 48명이 20일 오전 복통과 구토 증상을 보여 조기 귀가조치됐다. 이 중 증상이 심한 학생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12명은 다음날인 21일에도 학교에 나오지 못했다. 정상 등교한 36명도 다른 학생들에 대한 감염이

우려돼 귀가조치됐다.

시교육청은 집단 발병의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학교급식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복통 등의 증상을 보인 학생들에 대해서도 귀가조치 등을 통해 일반 학생들과 격리시키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집단 발병한 시점이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기

전인 오전인 만큼 음식물 섭취에 의한 식중독은 분명 아니다"면서 "하지만 환자들 1~6학년이 고루 분포돼 있어 현재로서는 정체를 알 수 없지만 전염성 있는 바이러스 감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전염성 있는 바이러스 감염 때문으로 밝혀질 경우 보건당국과 협의해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4일 생굴을 먹고 집단 식중독 증상을 나타낸 광주 문화초교 학생 77명과 무화초교 학생 11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는 오는 26일 나올 전망이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나원침 (7008)



평중선도지의 중심특권을 누리려는 3,636 회대단지!
 (평면면적 40~50평, 2~3인 가족 이상)
 수원선도시 파오래
 문의전화 062-367-9000

신문기사와 광고에 대한 불만
 독자편찬위원회가 규탄해 드립니다.
 누구라도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2-722-1282 www.ikpac.or.kr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출소 한달만에 또 도둑질 '덜미'

상나팔

○~40대 AIDS(후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자가 모텔에 몰래 들어 물건 훔쳐다가 경찰에 걸림.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김모(45·광주시 남구)씨는 지난 20일 새벽 4시50분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 H모텔 203호에 침입, 자고 있던 조모(22)씨의 가방과 축구화 등 시가 21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다닌 것.

○~김씨는 이 모텔 3층에서 또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려다 이를 수상하여 긴 손님들의 신고로 붙잡혔는데 경찰에서 "한달 전 교도소에서 출소했는데 직장도 없고 먹고 살게 없어 도둑질을 하게 됐다"고 진술.

/임주형기자 jhlhm@kwangju.co.kr

귀빈을 위한 마지막 호!
 하남 귀빈장레식당
 기쁘게 맞이해 드립니다

귀빈장레식당
 943-4444 943-4429